



부활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  
형제적 일치에 이르게 한다  
(생활규칙 24).



오늘 2024년 2월 28일 현지시간으로 4시 11분에  
브라질 상 파울로 성녀 카타리나 병원에서  
마리아 에우제니아 아우라 페드로자 수녀님께서  
88세 63년 수도생활을 마치셨습니다.

에우제니아 수녀님을 아버지의 자비에 맡겨 드리는 오늘, 전례에서 시편 저자는 '당신은 나의 하느님, 나의 날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노래합니다. 이 말씀은 빠스또렐라로서 삶의 모든 순간을 충실하고 기쁘게 사신 에우제니아 수녀님의 선교사로서 삶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마리아 에우제니아 수녀님은 1935년 6월 10일 브라질 카노틴호에서 태어나, 6월 30일 성 세바스티아노 본당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1958년 1월 28일 브라질 레오폴드 카시아스 도술로 입회하였고, 1959년 10월 3일 착복식을 하였습니다. 1960년 2월 1일 입수련을 하였고, 1961년 2월 2일 레오폴드 카시아스 도술에서 첫서원을 하였습니다.

에우제니아 수녀님은 초기 양성기부터 깊은 신심을 가졌고 겸손하고 일을 열심히 하며 인내심이 많고, 양순하고 책임감이 강하고 관대하였으며, 실천 지성의 소유자였습니다. 첫서원 후 약 2년간 레오폴드 카시아스 도술에 남아 있다가 그 이후 가정 사목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목 사명을 수행하였고, 몇몇 공동체에서 원장으로 지냈습니다. 1963년 상 파울로 자바퀘라의 '거룩한 여성 목자 학교'에서, 1967년 포르토 알레그레의 메디아네이라에서, 1972년 포르토 알레그레 유리알도에서, 1975년 레덴사오 오 아라과아에서 지냈습니다.

1980년 상파울로의 자르딤에서 면학기를 지내고 다시 사명을 수행합니다. 1983년 상파울로의 부탄타, 1984년 마쎬이오, 1992년 세이란다, 1999년 레치페, 2002년 투파나팅가, 2018년 뮤투카 페스퀘이라에서 지내고, 2022 마체이오에서 3개월간 머무른 후 상파울로의 자르딤으로 돌아옵니다. 2023년 건강 때문에 62년 간의 직접 뛰었던 사도직에서 나와 성 요셉 공동체로 와서 사랑으로 돌봄을 받으며 빠스또렐라로서의 삶을 지속해서 기쁘게 살았습니다.

한 사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나는 수녀님의 사도적 열정과 사명에 대한 헌신과 평온하고 깊이 있는 현존과 하느님 나라와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헌신했던 삶에 대하여 증언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목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면서 자신의 삶과 우리의 삶에서 이 주님의 목소리의 전달자가 되어 단순하게 신앙과 희망을 드러내는 수녀님의 현존에 대하여 선한 목자께 감사드립니다.

동료 수녀님들은 수녀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에우제니아 수녀님은 어디를 가든, 특히 변두리와 시골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의 수도생활의 목표는 선한 목자 예수님을 모방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녀님은 사람들과 지나가는 모든 곳을 방문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였습니다. 단순하고 조용하고 기도하며 공동체와 사도직에서 진실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사람들과 수도회의 현실과 정서와 신심을 노래로 승화시키며 받아들일 줄 알았습니다.

에우제니아 수녀님은 선교, 교리, 전례, 성서에서 큰 열정을 지닌 빠스또렐라였습니다. 작곡가, 미술가. 섬세한 재봉사..... 재능들을 사목 직무로 복음화를 위하여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사명과 성소를 사랑하였습니다. 천국에서도 반드시 지속해서 “빠스또렐라, 이 이름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선한 목자는 알베리오네와 함께 시대의 징표를 식별하며, 아버지와 함께 친해지라고 오늘 우리를 더 부르네(수녀님이 수도회 창립 70주년을 위하여 작사한 노래).”라며 노래 할 것입니다.

에우제니아 수녀님의 마지막 시기를 사랑으로 헌신적으로 돌보신 성 요셉 집의 수녀님들과 함께 일하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하느님의 나라를 위하여 소진하게 해 주신 에우제니아 수녀님의 삶에 대하여 선한 목자께 감사드리고, 모든 믿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겸손하고 부지런한 마음을 주시도록 중재해 주기를 청합니다.

2024년 2월 28일 로마에서

총원장 아민타 사르미엔토 푸엔테스 수녀